

“2500년 불맥 밝혀졌으면...”

전문가 안내

강창화

〈제주대교사·제주대박물관〉



△현무암으로 조성된 제주도 유일의 보물 불탑사 5층석탑

다. 법화사의 중심시기는 14~15세기로 판단된다. 번째 제주에 원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탐라총관부가 설치된 후 원과 관련된 건물이 신축된 시기가 있었음을 추측해 본다. 이 시기의 건물군의 존속시기를 알려주는 자료로써 명문기와, 운통문(雲通文), 운봉문(雲鳳文) 따위, 원대화병, 이중각원초석, 이중기단석 등이 있다. 특히 “지원6년(1269년) 16년(己卯)” 명문기와는 이 시기의 건물이 지원6년(1269년)에 중창을 시작하여 지원16년(1279년)에 마쳤다는 확실한 연대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 시기는

불탑사 탐 제주 유일 보물 불탑사 4차례 중창

법화사는 수정사 불탑사와 더불어 고려 후기 제주지방의 대표적인 사찰이었다. 불탑사는 원의 순재 때 창건되었으며 현재 제주도에서 유일한 고려석탑이 자리하고 있다. 법화사 및 수정사는 그 창건 연대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이들 사찰은 조선전기까지 계속 존속되어 제주불교의 맥맥을 유지해 나갔다.

옛 법화사는 크게 건물지와 연지구역으로 배치되어 있다. 건물지는 네 단계의 변천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첫 시기는 탐라총관부가 설치되기 이전으로, 이 시기에 해당하는 확실한 건물지나 유물은 거의 없다. 다만 개원통보(開元通寶)와 통일신라의 절그릇으로 그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

다. 법화사의 중심시기는 14~15세기로 판단된다. 번째 제주에 원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탐라총관부가 설치된 후 원과 관련된 건물이 신축된 시기가 있었음을 추측해 본다. 이 시기의 건물군의 존속시기를 알려주는 자료로써 명문기와, 운통문(雲通文), 운봉문(雲鳳文) 따위, 원대화병, 이중각원초석, 이중기단석 등이 있다. 특히 “지원6년(1269년) 16년(己卯)” 명문기와는 이 시기의 건물이 지원6년(1269년)에 중창을 시작하여 지원16년(1279년)에 마쳤다는 확실한 연대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 시기는

마지막 시기는 조선초 건물이 허물어진 후 만들어진 것이다. 그 시기는 대략 자기유물의 출토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15세기 중엽 이후에서 17세기 말까지로 짐작된다. 몇 개의 초가터와 화초 등을 재배했던 것으로 추측되는 계단유구, 외곽담장, 약간의 배수시설이 이 시기에 해당하는 유구다.



△제주 법회사지 발굴현장에서 강창화선생이 중창연대를 나타내주는 명문기과가 나온 곳을 설명하고 있다.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12월 법회사지 외

“부처님 제자가 탐라에 온 듯”

“부처님열반 직후 부처님제자 빌타라존지가 9백 나한을 거느리고 탐라국에 의 전법을 했다. <대장경 법주기> 이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우리나라 불교전래의 역사는 서기 372년이 아니라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제주도에선 부처님제자와 관련된 존지암지를 비롯 많은 사찰터가 남아 있다. '절 500 당 500'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융성했던 불교의 역사가 살아있는 제주도의 불적답사로 불교문화 테마여행은 그 막을 내렸다.

고찰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제주도에선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주지 중원)가 가장 오래된 절이다. 13일 제주에 내린 테마여행단은 옥석암에 이어 관음사를 찾았다. 1·3항쟁때 불탄 것을 지난 68년 중창한 관음사는 하얀눈으로 소복히 덮여 있었다. 제주에는 거의 눈을 보기 힘든데 이번엔 눈이 많이 와 현무암 돌담에 쌓여 있는 눈이 무척 소담스러웠다. 한라산 등반시에는 거의 관음사를 거쳐 오르게 되는데 관음사에서 백록담까지는 16km.

신라말 바다의 제왕 장보고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서귀포시 법화사(제주도 지정 기념물 제13호)는 15년 동안 7차례의 발굴을 마쳤다. 현재 1만 3천여 평이 보호관리되고 있는 법화사의 넓디 넓은 터 곳곳에 발굴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깨어진 자기, 기와편, 나란히 줄지어 있는 주춧돌들은 융성했던 시기의 법화사

의 거대한 모습을 연상시킨다. 종합정비복원계획이 수립되어 옛 모습 그대로 가림이 장엄하게 복원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법화사는 내년월부터 사계의 권위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가운데 토착차례의 대대적인 발굴에 들어간다. 법화사 주지 시몽스님은

장보고 창건설 법화사 복원 한창 약천사 대좌불·10만불 보며 경탄

“조선의 역불정책으로 제주불교는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지만 장보고대사의 개창원력이 오늘날까지 남아 법화사가 제주불교 활성화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14일 법화사에서 정갈한 아침공양을 마치고 일행은 중앙회대(대웅전안)의 좌불상이 병안되어 있는 약천사로 향했다. 구례

회암사 각황전과 금산사의 미륵전을 역학 계산해 설계해 지었다는 대웅전은 지하 1층 지상 3층규모로 연면적만도 1400여평에 달하며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대세지보살 등 각 불보살들이 아름답게 모셔져 있다. 용암이 분출하여 만들어진 괴상형 화산

은갖 모습의 돌하루방이 모여있는 금룡석굴암을 관람하고 불탑사로 떠났다. 제주도 특유의 현무암으로 조성된 5층석탑(보물 제 1187호)은 고려 충렬왕 26년(1300)에 원의 기왕후가 왕자를 얻기위해 석탑을 조성했다는 이야기가 전하는 제주 유일의 보물이다.

조선에 위치한 고관사(주지 도림)와 통일불사리탑은 남방불탑을 본떠 지은 탑으로 스님과 불자들이 직접 불상을 새긴 화강의 기와로 길을 장엄했으며 안에는 직접 조성한 만다라를 봉안해 놓았다. 조선불교를 증흥시키다 제주에서 순교한 허응당 보우스님의 순교기념비가 반갑게 맞아준다. 눈이 많이 와 존지암지(해발 1200m)를 가 보지 못해 아쉬웠지만 부처님 제자가 써준 편지(佛記) 편편히 이어져 제주불교가 새롭게 꽃피우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인 산방산 중턱에는 산방굴사가 위치하고 있다. 자연암굴에 세워진 산방굴사는 천연년전 고려때 해일스님이 창건했다고 한다. 굴안의 넓은 천장 앞면에서 불발음이 떨어져 고인 악수는 노인들이 함모금만 마셔도 10년을 더 장수한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악수다.

굴=이경숙 사진=고영배 기자

참/가/자/방/담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정성과 애송심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보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우리문화유산 다시 봤어요”

작한 불교문화 테마여행을 마치고 여러번 참여했던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감을 자유롭게 피력했다. 그 요지를 간추려 실는다.

- '반얀년 역사'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 우리문화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지 나자신부터 부끄럽습니다. 그동안 '불교는 낡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불교에 대해 너무 모르고 살았는데 불교문화 테마여행에 참가하면서 새롭게 많이 배웠습니다.
- 불교신자지만 전에는 그냥 법당에 들어가 절만 하고 오는 것이 고적이었습

니다. 그런데 테마여행에 참석한 후로는 아미타불 비로자나불 보살상을 구별할 수 있고 지금은 어느 절에 가더라도 그곳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갔다는 후에는 소감을 시로도 쓰고 또 대백과사전을 찾아보며 후속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불상·석탑등 이해폭 넓혀 사찰 옛모습 보존됐으면... 스님 법문도 가슴에 남아

- '아는만큼 본다'라는 말을 테마여행을 다니면서 실감했습니다. 유적들의 어느 점이 빠져나 국보·보물이 되는지, 눈 뿐 아니라 마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 특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불국사 석굴암과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가 보



게 되어 좋았습니다. 직접 둘러보고 그 가치에 대해 설명을 들으니 더욱 우리 성보가 소중하고 가치있어 보였습니다. 특히 팔만대장경이 6·25 와중에서 폭격을 당할 일보 직전에서 벗어났다는 말을 듣고는 아찔했습니다.

- 5월에 초의스님이 주석했던 대둔사 일지암을 간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일지암에 가서 차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즐겨마시던 커피를 끊고 녹차를 마시게 된 것도 나름의 성과입니다.
- 내소사 갔을때 고색창연한 단청이 너무 좋았습니다. 요즘 절들이 무조건 불사를 크고 화려하게 해 거부감을 줍니다. 스님들께서 주처장을 크게 한다든지 무조건 새 불사만 할 것이 아니라 절의 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보수에 더 역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 사찰참배에서 역시 하이라이트는 스님의 법문입니다. 사찰의 유래와 함께 삶의 핵심을 짚어주는 스님들의 법문은 오래오래 가슴에 남아 향기를 뿜습니다.



△뒷줄 왼쪽부터 이성모·김화순·윤근순·박현일·김경희·최장수 부부(시계방향으로)

“대화 늘고 금슬 좋아졌어요”

11회 테마여행 모두 참가 세 부부

지난 2월부터 시작되어 이번 제 주까지 총 11회의 불교문화 테마여행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가한 세 부부가 주최측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부부가 함께 참가한 것도 이채롭지만 한번도 빠지지 않은 열의가 놀라운 이들 세 부부는 최장수(68·前 중학교 교장)·김경희

(64)·박현일(58·한국통신 근무)·윤근순(50)·이성모(52·한의사)·김화순(48) 부부. 독실한 불자들이 다양한 여행도 반이 된 이들은 “불교를 더 잘 알기 위해 신청했는데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점도 좋았지만 부부사이 대화가 늘어 금슬이 더 좋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부다피아 포교기금”은 PCS 016과 함께 하는 불교통신사업입니다.

작은 선택만으로 불국토를 만들어 가는...

PCS 016 『부다피아 포교기금』



PCS는 · 통신전문가 「한국통신프리텔」 가입신청은 · 「포교기금 부다피아」로.

100년 기술이 PCS016에 모아집니다

최고의 첨단통신 PCS 016을 현대불교신문 「포·교·기·금·부·다·피·아」를 통해 가입하시면 남입하신 통화료내의 5%가 자동적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보시금으로 활용됩니다.

「포교기금 부다피아」 PCS 016 전국 가입처

- 서울본사 02-732-1522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청주지사 0415-63-3873
-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부산광역시 0551-84-0735 공주시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0
- 강릉지사 0391-653-1518 인천지사 032-461-3461 대전지사 042-625-1080
-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 주관 : 현대불교신문사

· 후원 : 한국통신프리텔, 우리민족 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소쩍새마을, (사)감로심장회